

## 제39회 모의고사 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④	⑤	③	④	③	②	③	⑤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④	③	⑤	⑤	②	①	⑤	③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⑤	④	③	②	②	⑤	④	②	③	⑤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①	④	④	④	③	③	①	①	②	④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②	②	③	②	①	③	④	④	②	④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①	②	①	②	②	①	④	④	⑤	⑤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④	④	①	②	⑤	④	④	③	②	⑤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②	⑤	③	③	①	②	①	④	③	③

### 1. ④ (P12)

① 감소한다. ② 회복능력 저하 ③ 저하 ⑤ 저하

### 2. ⑤ (P17)

① 증가한다. ②③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자녀가 직접 노인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④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은 낮아지고 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은 증가

### 3. ③ (P22)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

### 4. ④ (P24)

### 5. ③ (P36)

① 공단(건강보험관리공단) ②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④ 공단 ⑤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 6. ② (P42)

본인 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복지용구 15% 부담</li> <li>•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 경감</li> <li>•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li> </ul>
--------	--

### 7. ③ (P61)

관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li> </ul>
-----	---

정보 전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정보를 가족,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등에게 전달</li> <li>• 서비스 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 기관에 보고</li> </ul>
숙련된 수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련된 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해 주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li> </ul>
말벗과 상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으로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li> </ul>
동기 유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li> </ul>
옹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 주기</li> </ul>
※ 암기방법 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살펴본다(관찰자). ② 관찰한 사항을 가족 등에게 전달한다(정보전달자). ③ 이러한 일을 잘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숙련된 수발자). ④ 숙달되면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한다(말벗과 상담자). 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동기 유발자) ⑥ 마지막 대상자 편들어 주기(옹호자)	

8. ⑤ (P71)

9. ② (P87)

① 보건복지부 ③ 의료기관 ④ 학대노인 전용쉼터 ⑤ 법률기관

10. ③ (P89)

11. ④ (P93)

언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li> <li>•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li> <li>•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li> <li>• 회식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함</li> </ul>
-----	--

육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li> <li>•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li> <li>• 안마나 애무를 하거나, 신체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김</li> </ul>
시각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li> <li>•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li> <li>•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짐</li> </ul>

12. ③ (P96)

직업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종, 연령, 성별, 종교, 경제적 지위 등 이유로 대상자 차별 금지</li> <li>•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 인권옹호와 자기결정 존중</li> <li>•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li> <li>•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 습득</li> <li>•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li> <li>•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li> <li>•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비밀 유지</li> <li>•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협력</li> </ul>
-------	---

13. ④ (P96)

① 동의받고 수집해야 한다. ② 객관적으로 ③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4. ③ (P102)

15. ⑤ (P102)

16. ⑤ (P117)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작업이나 운동 시 부상 예방</li> <li>• 유연성을 증진시켜 관절의 가동 범위 확장</li> <li>• 격렬하고 빠른 운동에 반응할 수 있게 운동신경 촉진</li> <li>• 혈액순환 촉진 및 기분전환</li> </ul>
주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동작은 5~10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10초 정도 휴식</li> <li>• 천천히 안정되게 실시</li> <li>•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범위에서 실시(통증은 근육의 긴장과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li> <li>• 스트레칭 된 자세로 10~15초 정도 유지해야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난다.</li> <li>•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 실시</li> <li>•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실시</li> </ul>

#### 17. ② (P126)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li> <li>•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 동반</li> <li>•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과정과 구분 곤란</li> <li>•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퇴행성 질환이 대부분</li> <li>•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li> <li>•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li> <li>• 신장의 소변 농축능력과 배설능력 저하로 약물 중독</li> <li>•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li> <li>• 질환 자체가 비교적 가벼워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다.</li> <li>• 활동 강도 및 노화에 따른 혈액순환 저하로 욕창이 잘 발생</li> <li>•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되면 질환이 치유된 후에도 의존상태가 지속</li> <li>•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측면이 모두 연관</li> </ul>
-----	---

#### 18. ① (P140)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한다.

#### 19. ⑤ (P147)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 치료해야 한다.</li> <li>•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 ⇒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li> <li>•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 약을 오래 복용하는 것이 몸에 좋지는 않지만, 고혈압의 합병증보다는 안전한 약이 많다.</li> <li>•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 혈압이 조절된다고 약을 안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자마자 혈압이 다시 올라간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li> </ul>
--------------	--

#### 20. ③ (P155)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뼈를 보호해 주는 연골(물렁뼈)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상태</li> </ul>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절부위의 통증, 날씨가 활동의 정도에 따라 통증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li> <li>•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져 있는 경직현상</li> <li>•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질 수 있음</li> <li>• 관절의 변형(무릎 관절에 관절액이 많아져 무릎이 부어올라 모양 변화)</li> </ul>

치료 및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절 경직을 예방하고 근육강화를 위해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li> <li>관절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체중조절</li> <li>관절에 부담되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예: 수영, 평평한 흙길 걷기, 체조 등)</li> </ul>
---------------	---

## 21. ⑤ (P162)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li> <li>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것</li> </ul>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성호르몬 감소, 여성호르몬 증가</li> <li>비만,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섭취</li> </ul>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 요도가 좁아져 소변줄기가 가늘어짐</li> <li>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음(잔뇨감)</li> <li>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오음</li> <li>배뇨 후 2시간 이내 다시 소변이 마렵고 (빈뇨) 마려울 때 참기 힘들(긴박뇨)</li> <li>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깬(야뇨)</li> </ul>
치료 및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지방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 유지</li> <li>음주는 전립선비대증을 악화시키므로 금주</li> </ul>

## 22. ④ (P167)

③ 가슴기를 사용한다.

원인 및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내외 습도가 낮은 겨울철</li> <li>비누, 세정제와 알코올, 목욕 중의 뜨거운 물 사용</li> <li>피부발적, 부종 또는 통증, 전완 및 손과 하지의 가려움증</li> </ul>
치료 및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슴기를 사용하여 습도 조절</li> <li>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충분히 섭취</li> <li>목욕이나 샤워 시에는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 사용</li> <li>목욕 후 물기는 두드려 말린다.</li> <li>완전히 마르기 전 보습제 사용</li> </ul>

## 23. ③ (P173)

① 감소하여 건조해지기 쉽다. ②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화는 황화현상으로 보라색, 남색, 파란색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낀다. ④ 각막반사가 저하되어 손상이나 감염에도 둔감해진다. ⑤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 60세 노인은 20대보다 1/3 정도밖에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된다.

## 24. ② (P180)

① 양발을 착용한다. ③ 차갑거나 뜨거운 곳에 발을 노출하지 않는다. ④ 약물요법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⑤ 공복 시 운동을 하거나 장기간 등산 시에는 저혈당에 대비한다.

## 25. ② (P184)

① 의식 수준의 변화로 잠에서 덜 깬거나 몹시 졸리운 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임 ③ 대체로 회복됨 ④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함 ⑤ 갑자기 나타남

섬망	치매
갑자기 나타남	서서히 나타남
급성질환	만성질환
대체로 회복가능	대부분 만성으로 진행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봄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봄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함	신체 생리적 변화는 적음
의식의 변화가 있음	말기까지 의식의 변화는 적음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짐	주의 집중은 별로 떨어지지 않음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함	개인별 차이가 있음

## 26. ⑤ (P194)

① 위암 ② 천식 ③ 파킨슨 질환 ④ 고관절 골절

27. ④ (P201)

수분 섭취	제한	• 간경화, 심부전, 신부전증, 부신 기능저하증, 심한 갑상선기능저하증
	권장	•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폐렴, 기관지염,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

28. ② (P204)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면 중에 자주 깬다.</li> <li>• 수면량이 줄어든다.</li> <li>• 잠들 때까지 오래 걸린다.</li> <li>• 낮 동안 졸림증이 많아진다.</li> </ul>
	×	• 수면량이 늘어난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li> <li>•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한다.</li> <li>•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li> <li>•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따뜻한 우유 등을 마신다.</li> <li>• 취침시간이 너무 길면 오히려 불면증에 걸릴 수 있다.</li> <li>• 취침 전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li> <li>• 수면제나 진정제를 장기복용하지 않는다.</li> <li>• 낮잠을 가급적 삼간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따뜻한 커피를 마신다.</li> <li>• 취침 전 집중하는 일을 한다.</li> </ul>

29. ③ (P205)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복용 중인 질병 치료제가 정상적인 성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li><li>• 당뇨병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다.</li><li>• 심장질환을 가진 모든 노인에게 성교 시 심장마비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li><li>• 뇌졸중 노인의 경우 성적 활동을 막을 필요는 없다.</li><li>• 자궁적출술과 유방절제술을 한 여성 노인은 성기능을 변화시키지 않는다.</li><li>•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하는 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li><li>•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진정제는 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li></ul>
성생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표현은 기본 욕구의 하나이다.</li><li>• 성에 대한 개념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사생활을 존중해주고 개인의 특성에 맞게 도와준다.</li></ul>

30. ⑤ (P214)

대 상	50~64세	65세 이상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기본접종은 모두</li> <li>• 이후 10년마다 파상풍, 디프테리아 추가접종</li> </ul>	
인플루엔자	매년 1회	
폐렴구균	위험군에 대해 1회~2회 접종	1회
대상포진	1회	1회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5세 이상 노인은 반드시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장</li> </ul>	

31. ① (P308)

② ③ 흐르는 물에 씻는다. ④ 손가락을 반대쪽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한다. ⑤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준다.

32. ④ (P425)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33. ④ (P440)

사례 회의	<p>=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li> <li>• 대상자에 대한 정보교환과 요양보호의 지원 목표를 공유하여 서비스 질 향상</li> <li>•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비스 내용 조정</li> <li>• 대상자와 관계된 직종들의 역할분담 명확히</li> </ul> <p>※ 사례회의는 '서비스'와 관련된 단어를 찾는다.</p>
월례 회의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와 업무 준수사항 전달</li> <li>•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와 관련된 정보 전달(대상자 건강 등)</li> <li>• 관리자가 요양보호사로부터 기관운영, 인사, 복리후생에 대해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li> </ul>

34. ④ (P507)

35. ③ (P512)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종 시 가족이 임종 대상자를 직접 돕게 한다.</li> <li>• 가족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께 있다.</li> <li>• 장례식이나 장지에 가는 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li> <li>• 적절한 신체 접촉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혼자자 아니라는 느낌을 준다.</li> <li>• 가족이 대상자에게 한 일에 대해 “참 잘했네요”, “좋습니다”라고 지지한다.</li> <li>•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와 같은 피상적인 표현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하지 않는다.</li> </ul>
----	--

- “힘드시지요, 수고 많으셨어요”와 같이 공감하고 위로해 준다.
- 가족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슬픔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 자세를 유지한다.

36. ③ (P228)

사례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li> <li>• 의자에 앉을 수 없는 대상자는 몸의 윗부분을 높게 해주고 턱을 당긴 자세</li> <li>•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힌다.</li> <li>•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li> <li>• 대상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li> <li>•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li> <li>•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하지 않는다.</li> </ul>
-------	---

37. ① (P232)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이 줄어들고, 중력에 의해 영양액이 잘 흘러내려 간다.

38. ① (P237)

아랫눈꺼풀(하안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는다.

39. ② (P238)

①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근다. 귀약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내이를 자극하여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다. ③ 작은 솜을 15~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 제거한다.

④ 약물이 귀 안쪽으로 잘 들어가게 하려면 대상자의 귀 윗부분을 잡고 뒤쪽(후상방)으로 잡아당겨야 한다. ⑤ 대상자가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하여 귀약 투여에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준다.

#### 40. ④ (P241)

① 불편한 쪽에 서서 ② 굽이 있는 안전한 신발 착용 ③ 건강한 쪽으로 ⑤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문을 다고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응급벨을 설치한다.

#### 41. ② (P243)

대상자를 갑자기 침대에서 일으키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울 수 있다.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잠시 침대에 앉아 있게 한다.

#### 42. ② (P248)

#### 43. ③ (P250)

① 너무 조이지 않도록 한다. ② 피부발적 등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보고한다. ④ 기저귀의 바깥 면(깨끗한 부분)이 보이도록 말아 넣는다. ⑤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하여 대상자의 협조하에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다.

#### 44. ② (P251)

소변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소변주머니가 높이 있으면 소변이 역류하여 감염의 원인이 된다.

#### 45. ① (P257)

② 가능한 한 앉혀서 머리 부분을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칫솔질한다. ③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 짜야 한다. ④ 45° 각도로 치아에 대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3분간 세심하게 닦는다. ⑤ 입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여러 번 행구고 마른 수건으로 입 주위를 닦는다.

#### 46. ③ (P261)

두발전용 세정제 사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일 때</li> <li>• 모발에 내용물이 충분히 적셔지도록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머리 마사지</li> <li>•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 말려 준다.</li> </ul>
----------------------	---

#### 47. ④ (P266)

①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대상자를 앉힌다. ② 눈, 코, 뺨, 이마, 귀, 목 순으로 ③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서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⑤ 수건에 비누를 묻혀 입술과 주변을 깨끗이 닦은 후, 이마와 볼, 목의 앞, 뒤를 골고루 세심하게 닦는다.

#### 48. ④ (P272)

침상 목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눈 주변에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li> <li>• 눈 → 코 → 뺨 → 입 주위 → 이마 → 귀 → 목의 순서로 닦는다.</li> <li>• 양쪽 상지는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li> <li>• 양쪽 하지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li> <li>•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li> <li>• 복부는 배꼽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닦는다(장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 도움).</li> <li>•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는다.</li> <li>• 목욕을 마친 다음에는 물을 마시게 하고 휴식을 취하게 한다.</li> </ul>
----------	--

#### 49. ② (P279)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기고, 마비된 쪽을 먼저 입힌다.

#### 50. ④ (P281)

올바른 신체정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보호사의 허리와 가슴사이의 높이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li> <li>•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한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 지지면을 넓힌다.</li> <li>•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하여 골반을 안정시킨다.</li> <li>• 대상자 이동 시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 유지</li> <li>•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고 보조 후 적절한 휴식</li> </ul>
-------------	--

51. ① (P292)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

52. ② (P296)

53. ① (P299)

휠체어 ↓ 자동차	<p>①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거나 약간 비스듬히 하여 놓는다.</p> <p>② 요양보호사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측 무릎을 지지하고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p> <p>③ 건강한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도록 한다.</p> <p>④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대상자의 엉덩이 또는 상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 깊숙하게 앉도록 한다.</p> <p>⑤ 대상자와 동승을 하는 경우 반드시 대상자 옆자리에 앉는다.</p>
자동차 ↓ 휠체어	<p>① 한쪽 팔은 대상자의 어깨를 지지하며 대상자 다리부터 밖으로 내린다.</p> <p>② 요양보호사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측 무릎을 지지하고, 일으켜 휠체어로 돌려 앉힌다.</p>

54. ② (P310)

흡인 물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흡인은 기도의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연하를 못하여 생기는 코와 입의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것</li> <li>•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li> <li>•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물에 담가 놓는다.</li> <li>• 흐르는 물에 카테터를 비벼 씻는다.</li> <li>• 전용 냄비에 소독할 컵과 카테터를 넣고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li> <li>• 소독한 컵은 냄비 뚜껑을 닫은 채 물을 버린 후 건져서 자연 건조</li> <li>•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건조</li> <li>•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씻어 소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야에 물을 받아 카테터를 비벼 씻는다.</li> <li>• 카테터 같은 고무 제품은 쟁반에 널어서 햇볕에 말린다.</li> <li>• 카테터는 소독약을 묻혀 비벼 씻는다.</li> </ul>

55. ② (P311)

대여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동휠체어</li> <li>• 수동침대</li> <li>• 목욕리프트</li> <li>• 경사로(실외용)</li> <li>• 전동침대</li> <li>• 이동욕조</li> <li>• 배회감지기</li> </ul>
구입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변기</li> <li>• 목욕의자</li> <li>• 욕창예방 방석</li> <li>• 성인용 보행기</li> <li>• 안전손잡이</li> <li>• 자세변환 용구</li> <li>• 경사로(실내용)</li> <li>•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li> <li>• 간이변기(간이대변기 · 소변기)</li> <li>• 지팡이</li> <li>• 요실금팬티</li> </ul>
구입 또는 대여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욕창예방 매트리스</li> </ul>



56. ① (P312)

57. ④ (P331)

① 험겁게 늘어지거나 긴 옷은 가구나 문고리 등에 걸릴 수 있으므로 피한다. ② 바닥 타일과 장판은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있는 제품만을 사용한다. ③ 취침 시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춘다. ⑤ 높이 낮은 노인용 침대 사용

58. ④ (P338)

① 코드를 사용하기 전에 전선이 벗겨져 있는지 다른 파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코드를 꽂지 않도록 하며 연결 코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③ 전기기구 물품 세척 시나 수선 시에는 절대 전기를 연결하지 않는다. ⑤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빼야 코드와 플러그가 손상되지 않는다.

59. ⑤ (P365)

①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해서 먹자. ②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지 않는다. ③ 식사 중에는 말을 시키지 않는다. ④ 유제품류는 마시는 형태보다 떠먹는 형태를 선택한다.

60. ⑤ (P384)

손으로 약하게 짜거나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한다.

61. ④ (P388)

①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와 업무 담당자를 연계한다. ③ 업무 대행 중 영양보호사는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다. ⑤ 불만족하여 재요청할 때는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한다.

62. ④ (P402)

라포(apport)란 '마음의 유대'라는 뜻으로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상태, 즉 두 사람 사이의 상호신뢰 관계를 나타내며, 의사소통의

기본이다. 라포가 형성되면 인간관계에서 호감과 상호신뢰가 생기고 비로소 유대감이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63. ① (P403)

64. ② (P403)

65. ⑤ (P411)

66. ④ (P413)

67. ④ (P444)

기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 사용</li> <li>• 투명한 유리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li> <li>• 소금이나 간장과 같은 양념은 식탁 위에 두지 않는다.</li> <li>•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리면 좀 더 걸쭉한 액체음식 제공</li> <li>• 졸려 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려 하거나 초조해할 때도 식사를 제공한다.</li> <li>• 사례에 자주 걸리는 대상자에게는 더 묽은 음식을 제공한다.</li> </ul>
돕는 방법	식사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사 전에 음식 온도를 영양보호사가 미리 확인한다.</li> <li>• 비닐로 된 식탁보나 식탁용 매트를 깔아준다.</li> <li>•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입힌다.</li> </ul>
	식사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을 흘리면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 사용</li> <li>• 약간 무거운 손가락을 주어서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준다.</li> <li>•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놓는다.</li> </ul>
	식사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사하지 않아 체중감소 시 → 의료진에게 알리고 원인 파악</li> <li>• 체중감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나, 고열량의 액체음식 제공</li> </ul>

68. ③ (P445)

①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하여 덜 흘리게 한다. ② 규칙적인 생활은 대상자의 혼란을 경감시키고 정신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④ 물을 마실 때 흘리면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한다. ⑤ 음식을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하여 치매 대상자가 쉽게 먹을 수 있게 한다.

69. ② (P454)

① 주변에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두지 않는다. ③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올 때 잠긴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④ 발에 맞은 신발을 신도록 한다. ⑤ 치매 대상자가 놀라지 않도록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은 없애거나 덮개를 씌운다.

70. ⑤ (P456)

반복 질문이나 반복 행동에 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71. ② (P457)

기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는다.</li> <li>• 치매 대상자가 식사했음에도 밥을 달라고 하는 경우 →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깐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얘기한다.</li> </ul>
돕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릇의 크기를 조절하여 식사량을 조정한다.</li> <li>•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식품을 이용한다.</li> <li>•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 준다.</li> <li>•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한다.</li> <li>•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매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게 한다.</li> </ul>

72. ⑤ (P459)

73. ③ (P461)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74. ③ (P463)

이상행동 반응을 보이면 질문하거나 일을 시키는 등의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75. ① (P464)

76. ② (P488)

77. ① (P515)

③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④ ⑤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절대 응급처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78. ④ (P520)

①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상 부위를 만지거나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된다. ② ③ 화상 부위에 간장, 기름, 된장, 핸드크림, 치약 등을 바르면 세균감염의 위험이 있고 열기를 내보내지 못하여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절대 바르면 안 된다. ⑤ 흐르는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대면 물의 압력으로 인해 화상 입은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79. ③ (P524)

80. ③ (P534)

분석 중이니 물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는다.